

원효사상으로 본 법주사건축

Architecture of Beob Joosa temple in terms of the One Hyo thought

저자 (Authors)	김선중, 김기수 Kim, Seon-Joong, Kim, Ki-Soo
출처 (Source)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2) , 2017.12, 108-109(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34787
APA Style	김선중, 김기수 (2017). 원효사상으로 본 법주사건축.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2), 108-10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11 14:5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효사상으로 본 법주사건축

Architecture of Beob Joosa temple in terms of the One Hyo thought

○김 선 중* 김 기 수**
Kim, Seon-Joong Kim, Ki-Soo

Abstract

Beob Joosa temple is built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t has been changed with the times, temple architecture would have been planned and arranged to symbolize spirit of Buddhism. The Buddhism of Korea can be regarded as the integrated Buddhism and it has been influenced by the tradition of the Buddhist tradition inherent in Korea. Starting from Wonhyo. The inherent tradition base has continued to be the root of Buddhism and the buildings will also be influenced by the Buddhist spirit. To study and look at what part of current Deconstruction of Philosophy and elements are like Wonhyo thought with Beob Joosa temple

키워드 : 사찰배치, 통불교, 원효사상, 해체철학

Keywords : Temple arrangement, Integrated buddhism, One Hyo thought, Deconstruction of Philosophy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역사적으로 법주사는 삼국시대 창건된 사찰로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며 발전과 쇠퇴를 계속하여 왔다. 기본적으로 사찰건축은 불교의 사상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배치 및 형태가 계획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로 볼 수 있으며 한국 고유의 통불교적 화쟁의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법주사도 그 영향을 받았으리라 본다. 고유 전통기반은 원효에서 시작하여 맥을 이어왔으며 건축물도 영향을 받아 불교적 정신을 구현하며 변화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 사상적 기반을 구축한 원효의 정신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원효의 정신을 반영한 건축적 개념을 찾아보고 어떠한 건축요소가 해체철학과 같이 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원효사상은 근래에 현대 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박종홍 이기영 등 철학자에 의해 진행되었고 최근 김영효)는 차연(差掇)과 직물짜기 개념의 해체철학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법주사의 건축과 조형물을 원효사상과 관련된 해체주의 건축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해체주의 철학 개념과 원효의 사상

2.1 해체주의 건축

해체주의는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를 대표하는 데리다의(J. Derrida) 서양철학의 이분적 사고의 해체에서 유래한다. 데리다는 서양철학의 이데아 개념을 다름과 지연이라는 차연의 개념을 가지고 해체하고자 하였다. 차연은 차이와 연기의 결합이다.) 차연은 조금 다르면서 같은 것이고 시간적으로 지연된 것이다. 해체철학의 사물은 직물짜기의 개념으로 다른 요

소와의 융합을 통해 차연적 개념으로 되어있다고 정의한다. 현대 건축에서의 해체주의 특징은 절충주의, 콜라주, 탈형식주의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체주의 철학의 개념인 로고스 및 이념의 해체라기 보다 물리적 비틀, 관통, 분해등으로 건축 구성 요소의 물리적 해체에 그치고 있다.

2.2 원효의 불교사상

원효는 당나라의 현장이 인도에서 도입한 유식학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도중 토막에서의 깨달음으로 돌아온다. 신라의 대안스님 등에게 교학을 배우고 여러가지 이론을 공부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교파마다 우월성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교학 논리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원효는 중론의 공과 유식의 마음 중심의 주장이 8식과 9식에서 통섭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모든 것이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대승기신론의 논서를 중요하고 화쟁의 논리를 펼쳤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소에서 진속을 융합하되 깊고 넉넉하여 하나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融眞俗而溥然 融二而不一)1) 진여와 세속이 차이는 없어지지 않으면서 경계를 상관적으로 동거시킨다는 현대적 해체철학의 差(차)然(연)의 개념이다. 진화염경소에서는 원용무애의 일체법을 설하는 화염경을 보편적 원리의 원용과 회통으로 보았다. 우주적 화염사상을 높이 평가하였고 화쟁사상의 기초교학으로 하였다. 화엄과 중관의 공사상과 유식이 여래장 사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화쟁의 지평으로 삼았다.

3. 법주사 건축

3.1 법주사 건축배치

신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통일신라 성덕왕시 중수하며 석연지등을 배치하고 장육존상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 통일신라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웅보전 계단의 소맷돌과 석등을 보면 통일신라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대 상황이 전쟁에 지친 서민에 희망을 주는 미륵과 중국에서 도입된 유식의 철학을 가진 법상종 그리고 우주법계의 정신을 표현한 화엄적 교리가 도입된 시기이므로 자연스레 법상 화엄을 상징하는 전각이 중수되었다.

* 충북대 대학원 박사과정

** 충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교신전자 :gskim@cbnu.ac.kr)

1) 철학박사 한국정신문화원 교수

2) 김종욱 불교학보 p293

성덕왕 중건시에 미륵불과 비로자나불이 각기 산호보전과 대웅보전에 봉안되었을 것이다. 양측의 중심에는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는 팔상전이 위치하여 법상 혹은 화엄 법화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불전 주위에 강당이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기 다른 종파를 상징하는 전각과 탑이 배치되고 공존하는 것은 원효의 화쟁사상 이후 내려온 전통에 의한 것으로 한국 불교의 특이한 양식이다. 고려 말 무신정권 이후 교종보다는 선종을 중시되어 강원과 선원이 같이 존재하고 있고 조선시대 대중들의 수요에 따른 산신각 천왕문 등이 건축되어 초기의 위계적인 배치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였다.

3.2 원효사상과의 관계

원효의 화쟁 사상이 한국불교전통으로 선교 양종의 맥을 이어 내려와 사찰에 영향을 주었다. 대승불교와 원효의 일심 사상이 한 맛으로 회통함에 따라 선교 양종 및 화엄 법상 선종의 요소 및 전통종교의 산신 신앙까지 공존하고 있다. 산신각의 주불은 석가모니불이고 산신은 보처이다. 팔상전의 석가모니 부처와 보처불, 대웅보전의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용화전의 미륵부처는 일심의 불성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공통적인 일심의 발현인 사찰 단지의 조형물로서 각각 不一(불일)而(이) 不(불)二(이)의 관계이다. 전각의 양식은 고건축 법식을 따르고 있고 불성을 표현했다.

3.3 해체철학 개념과 범주사 건축

원효의 대승사상은 1400년 전의 낡은 철학이 아니다. 김영효는 원효의 대승철학에서 원효의 사상을 현대에 유용한 해체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시대를 뛰어 넘은 현대적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원효는 해체철학의 직물 짜집기의 원리를 사물의 해석에 이미 적용하고 있었다. 사물의 융합된 면을 보고 두 개가 융합하되 하나가 아니고(融而不一)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不一而二) 금강삼매경론소에서 원효의 주고 받는 대사법(代謝法)이다. 대사법은 해체철학의 차연(差掇)개념이며 직물 짜집기 개념의 다름 아니다.

조형물과 건축물을 조성한 스님들이 원효의 대승철학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원효사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전해오는 화쟁의 반영으로 각각 다른 교학이론을 배경으로한 전각과 조형물을 한 단지에 조성하고 있다. 또한 부처의 나라를 나타내는 불성의 구현 목적으로서만 건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선원과 각종 전각, 대중 문화적 수행적 요구인 템플스테이 능인관, 암자, 요사체가 어우러진 복합적 사찰단지로서 조형물 상호 영향을 주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중심원리와 이론을 부정하는 해체철학과는 건축 양식과 장식적으로 보면 배치되는 것이나 정신적 화쟁정신 반영인 다른 교학에 바탕을 전각들이 테리다의 리쑤 이론같이 뻗어나가며 형성되었고 전각 상호간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 있다. 해체철학의 흔적 개념인 과거의 조형물과 상호 보충대리의 개념이 있는 것이다.

4. 결 론

범주사 건축은 삼국시대 창건되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흥망을 계속하여 왔다. 통일신라 말기 성덕왕대에 주요 전각들은

중건을 하면서 정립되었다고 본다. 고려 말 무신정권 이후의 선종이 중시되어 선방이 설립되었다고 보여진다. 조선과 근대를 거치면서 요사채 산신각들의 전각과 천왕문과 암자가 건축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문화 수요에 의한 건축과 일반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건물인 능인관이 건축되었다. 초기의 법상종과 화엄종의 전각인 산호보전과 대웅보전이 건립된 것은 원효의 통불교의 정신의 구현으로 보여지며 현대까지 내려온 화쟁정신의 산물이라고 보여진다. 화쟁정신이 금강삼매경론소의 불일이불이(不一而二)의 원효의 표현처럼 사물의 다른 면들의 같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자크 데리다의 차연의 개념과 직물짜기 및 보충대리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전각이 같이 있다는 것은 화쟁정신의 반영이다. 그 시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시키며 시대적 불교 조류를 반영한다. 삼국시대 조형물들은 혼적으로써 존재하고 있다. 현대 대중의 문화적인 수요 및 승가의 암자 건축이 확장되는 것은 해체철학의 생기론적인 측면이며 리쑤적인 확장으로 수평적 연결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영효, 원효의 대승사상, 소나무, p56, 2006
2. 고영섭, 분황원효의 사상, 도서 출판 운주사, p187 2016
3. 김영효, 테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p153,p195,p206, 1994
4. 장용순, 현대 철학의 철학적 모험, 미메시스,권3 p169, 2011
5. 김종욱, 현대철학의 경향과 원효의 불교사상,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293, 2012